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 2020년 어린 “전복” 방류 완료 보고

시정혁신  
보다나은 인천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http://fish.incheon.go.kr>

#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20년 어린 “전복” 방류 완료 보고

해양 환경변화 및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우량의 전복 치패를 관내 어장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자원량을 증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I 방류 개요

- 방류일시 : 2020. 5. 14(목) (대객기, 저조 16:06 276)
- 방류품종 : 어린 전복 108,000마리
- 종자크기 : 각장 4.5cm 이상
  - ※ 관련근거 : 2020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 방류해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지선
- 방류방법 : 어선 1대로 방류지역까지 이동 후 선상 방류

## II 참석자

-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자원연구소장의 8명
- 관련기관 : 영흥화력본부 관계자, 승봉어촌계장 및 이장
  - ※ 코로나19 관계로 방류행사 참여인원 최소화 진행

### Ⅲ 방류 수량 검수

○ 표본 측정 결과

- 평균 각장 4.5cm내외 치패 30마리/303g 마리당 10.1g

○ 방류수량 검수

계량 회수(회)	총무게(g)	개체당 평균 무게(g)	방류수량(미)
219	1,090,800	10.1	108,000

### Ⅳ 방류 해역도

○ 어린 전복 방류 해역 : 웅진군 자월면 승봉리지선





1.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인천일보
2. [인천] 어린 전복 10만 마리 옹진군 해역 방류-YTN
3.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경인매일
4.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이뉴스투데이
5.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위클리오늘
6. 옹진군 승봉해역에 어린 전복 10만 마리 방류-경기신문
7. 인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경제효과 3배"-경인방송
8.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옹진군 승봉도 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내외뉴스통신
9.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뉴시스
10. 인천시, 청정해역 어린 전복 10만마리 방류-인천투데이
11.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진행-매일일보
12. 인천시, 수산자원 회복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10만 마리 방류-일요서울
13.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어린 전복 10만마리 승봉해역에 방류-한국일보
14. 인천시, 어린 전복 10만 마리 승봉도 해역에 방류-인천in
15.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옹진군 승봉도 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내외뉴스통신

HOME > 정치 > 지방자치

##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남창섭 | 승인 2020.05.14 | 댓글 0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 전복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만 마리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옹진군 자원면 승봉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하여 영흥화력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성패르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문 복족류에 속하는 종으로 수심 15m 이내의 암반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나며, 아르기닌과 타우린 성분이 약해진 몸에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전시황이 불르장삼을 위해 꾸준히 섭취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초 점승어 약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흥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도 참조기꽃게·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등 약335만 마리의 우량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방류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전복·참돔·치·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물종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코로나 19 국내 발생현황** 확진 11,018명 | 완치 9,821명 | 사망 260



- ▶ 퇴행성 관절염증, 관절통증 14일만에 완역해...
- ▶ 허리통증, 14일만에 "강당하" 사라져... 비결은?
- ▶ 육돈 필요할 땐 "이것" 해라! 망할 확률으로 300...
- ▶ 고관절-연골염증 14일만에 영골한계재생! 병원...
- ▶ 육돈 있다면 지금 당장 "이것" 사라! 겨우 한달...
- ▶ "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 밝혀서...
- ▶ 이준호, 이준 후 100억대 권문주요... "급유주러..."

뉴스룸 > 한국

## [인천] 어린 전복 10만 마리 옹진군 해역 방류

Posted : 2020-05-14 23:44



- 비아X라 50배효과 1시간에 3번, 성생활 달라진다
- 텍베기사뽕, "23억"받고 2년 동안...?
- "담합조작" 한국로보 없어진다. 마지막 담합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옹진군 자월면 승봉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회복을 위해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영종도해운부 어패류 양식장에서 380여 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한 것

이 전복들이 2~3년 성장한 뒤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가치가 약 3배에 달해 어린 소득층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

HOME > 인천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5.14 20:54 | 댓글 0

전복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만 마리 방류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옹진군 자월면 승봉해역에 방류했다. 사진제공=인천수산자원연구소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옹진군 자월면 승봉해역에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하여 영종도해운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각각 4.5cm 이상의 무량 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상품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린 소득층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문 복족류에 속하는 종류로 수심

15m 이내의 얕은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나며, 아르기닌과 티우린 성분이 약해진 용어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꾸준히 섭취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 초 전남여 약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종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 갈조가 꽃게, 우꾸미, 갑오징어, 바지락 등 약335만 마리의 무량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방류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 전복, 참돔, 치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물중 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량면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전복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만 마리 방류

오일교 기자    2020.05.14 08:52    댓글 0

HOME > 한국 > 인천취재본부

#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신윤철기자    승인 2020.05.14 16:20    댓글 0



인천-연세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오후 3시 30분 승봉도 청정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해 영종도청정해역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 등을 통해 건강한 증자로 판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증자들이다.

해당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성패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 초 증봉어 약 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종청정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 참조개·꽃게·주꾸미·갯오징어·바지락 등 약 335만 마리의 우량 증자를 자체 생산해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민어·전복·참돔·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오후 3시 30분 승봉도 청정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해 영종도청정해역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 등을 통해 건강한 증자로 판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증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성패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문 복족류에 속하는 종으로 수심 15m 이내의 얕한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나며 아르기닌과 타우린 성분이 약해진 몸에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꾸준히 섭취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 초 증봉어 약 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종청정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 참조개·꽃게·주꾸미·갯오징어·바지락 등 약 335만 마리의 우량 증자를 자체 생산해 방류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전복·참돔·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해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호 기자    etc@onel.kr



HOME > 인천

# 웅진군 승봉해역에 어린 전복 10만 마리 방류

박창우 기자 | 승인 2020.05.14 19:56 | 댓글 0 | 7면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웅진군 자월면 승봉해역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해 영종화력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 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질원)을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박창우기자 pow@]



## 인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경제효과 3배"

3월뉴스 / 인천 / 해양-환경 뉴스 | 구대서 (kds@inm.kr)

작성일 : 2020-05-14, 수정일 : 2020-05-14

▶ 좋아요 |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좋아요

▶ 좋아요 0 | Print PDF Email



사진은 조희병과 방류 모습. <리포트> - 경인방송 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늘(14일)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웅진군 자월면 승봉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거친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입니다.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방류 전복이 2~3년 성장 후 성패로 자라 상복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초에는 점농어 21만여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통해역에 방류했으며, 앞으로는 참조기꽃게 등 335만여 마리의 우량 종자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ME > 전국 > 경기인천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용진군 승봉도 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김형만 기자 | 승인 2020.05.14 14:02 | 댓글 0



▲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자원회복을 위해 용진군 승봉도 해역에 방류한 어린 전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수산 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용진군 자월면 승봉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평해 영흥화력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 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만장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심해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문 복족류에 속하는 종으로 수심 15m 이내의 암반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나며, 아르기닌과 타우린 성분이 약해진 몸매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꾸준히 섭취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초 전봉어 약 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흥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도 참조기꽃게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등 약 335만 마리의 우량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방류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전복참돔참치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물종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이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중

수도권 > 인천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홍익 2020.05.14 09:00:00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스시스] 함상현 기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용진군 자월면 승봉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평해 영흥화력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 동안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만장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방류된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심해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초 전봉어 약 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흥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도 참조기꽃게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등 약 335만 마리의 우량 종자를 자체 생산해 방류계획 중이다.

또 민어전복참돔참치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물종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이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광원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을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해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sh3355@newsis.com

HOME > 뉴스 > 사회

## 인천시, 청정해역 어린 전복 10만마리 방류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0.05.14 08:25   ☞ 댓글 0

### 전복 자원량 회복을 위해 승봉도 해역에 방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용진군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승봉도 해역에 방류된 어린 전복(인천해양연구소)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해 영종화력본부 아패류양식장에서 300여 일간 사육한 것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염병 검사를 진행해 건강한 종자로 선정된 크기 4.5cm 이상 우량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이 2~3년 성장 후 성체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문 복족류에 속하는 종이다. 수심 15m 이내의 얕은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란다.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난다. 아르기닌과 타우린 성분이 약해진 문에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에 탁월하며 활력을 준다. 과거 진사탕이 불보장생을 위해 꾸준히 섭취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 초 정농어 약 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흥해역에 방류했다. 앞으로도 참조가꽃게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등 우량종자 약 335만 마리를 자체 생산해 방류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전복참돔차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물종 양식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광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해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ME > 전국 > 인천광역시

## 인천시,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진행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0.05.14 10:03   ☞ 댓글 0

### 전복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만 마리 방류



인천시청 전경

매일일보 김영훈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순(는)은 신학기관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용진군 자월면 승봉도해역에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하여 영종화력본부 아패류양식장에서 300여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선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성체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린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문 복족류에 속하는 종으로 수심 15m 이내의 얕은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나며, 아르기닌과 타우린 성분이 약해진 문에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진사탕이 불보장생을 위해 꾸준히 섭취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초 정농어 약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흥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 참조가꽃게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등 약335만 마리의 우량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방류 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전복·참돔·차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물종 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깊고 차가운 등해바다, 박달봉개

살이 폭산 제철 박달봉개  
풍고 차가운 등해 차양막에서 동행하게 살을  
채운 박달 봉개 조카인 우진 김수용.  
anatastore.com

닫기

HOME > 지역경제 > 인천

### 인천시, 수산자원 회복 승봉도 청정해역에 어린 전복

김영빈 기자 | 입력 2020.05.14 09:39 | 수정 2020.05.14 09:58 | 댓글 0

- 지난해 5월에 무화하여 영종화력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간 사육
- 건강한 종자로 선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



어린 전복 10만마리 방류(2~3년 성장 후 성패로 무화나 상품으로 출하)

[일요서울 | 인천 조동욱 기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무화하여 영종화력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염병 검사 등을 통해 건강한 종자로 선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성패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린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문 복족류에 속하는 종으로 수심 15m 이내의 얕은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나며, 아르기닌과 타우린 성분이 약해진 콩에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전식량이 불로장생을 위해 귀중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초 전농어 약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송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도 참조가꽃게,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등 약335만 마리의 우량 종자를 차체 생산하여 방류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전복,삼단,차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이인들에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 경제 사회 **사회** 자치행정 문화 교육 NGO 스포츠 정보 4:15출판

HOME > 뉴스 > 사회

### 인천시, 어린 전복 10만 마리 승봉도 해역에 방류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14 10:31 | 댓글 0



- 2~3년 후 성패로 자라 상품화되면 어린 소득증대 기여
- 시 수산자원연구소 올해 어패류 355만 마리 방류 계획



인천시가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방류했다.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5월부터 영종화력발전소 어패류 양식장에서 키운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전복 10만 마리를 승봉도 앞바다에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염병 검사를 거친 이들 어린 전복은 2~3년 후 성패로 자라 상품으로 출하되면 어린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초 어린 전농어 21만 마리를 영종영송해역에 방류한데 이어 이날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연내 참조기, 꽃게, 주꾸미, 갑오징어, 바지락 등 어패류 약 335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노광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패류 방류사업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어패류 방류를 지속 실시하면서 모니터링을 병행해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

수도권 대전/충청/강원 대구/영북 부산/경남 광주/호남/제주

##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어린 전복 10만마리 승봉해역에

입력 2020.06.14 10:52

좋아요 0개

댓글 0

공유 0

화

★

가

가



이일후 기자



Google 크롬  
최종 업데이트  
이 브라우저는 더 빠르고 안전하며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2~3년 뒤 다 자라면 경제효과 3배”



인천시가 14일 승봉해역에 방류한 어린 전복. 인천시 제공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마리를 14일 승진군 자원연구승봉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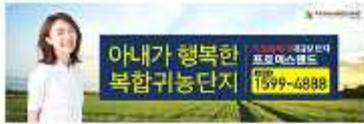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해 영종화력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1년간 사육한 길이 4.5cm 이상의 무당 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성패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가 약 3배에 달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초 전농어 약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흥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도 참조기꽃게, 주꾸미, 갑오징어, 바지락 등 약 335만마리의 무당 종자들 자체 생산해 방류할 계획이다.

또 민어, 전복, 참돔, 지해조류 양식기술을 개발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나선 방침이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사업은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해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원뉴스통신사 (nbn News Agency)

**내외뉴스통신**

≡ 전체

최신뉴스 정치 행정 경제산업 사회 문화 **연애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동정 전국 포

연애 스포츠 방송연예

HOME > 전국 > 경기인천

##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용진군 승봉도 해역에 어린 전복 방류

▲ 김형만 기자 | ⓒ 승인 2020.05.14 14:02 | ☎ 댓글 0



▲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자원회복을 위해 용진군 승봉도 해역에 방류한 어린 전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수산 자원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전복 10만 마리를 14일 용진군 자월면 승봉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전복은 지난해 5월에 부화해 영종화곡본부 어패류양식장에서 380여일간 사육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염병 검사 등을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각각 4.5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이 전복들은 2~3년 성장 후 성패로 자라나 상품으로 출하되면 경제적 효과는 약 3배에 달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복은 연체동물인 복족류에 속하는 종으로 수심 15m 이내의 암반 지역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장과 살에서 특유의 바다향이 나며, 아르기닌과 타우린 성분이 약해진 몸에 기력을 보충해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주기 때문에 원기회복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전식량이 불로장생을 위해 꾸준히 섭취한 음식 중 하나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4월초 정승어 약21만 마리를 영종해역과 영흥해역에 방류했고 앞으로도 참조기꽃게 주꾸미갑오징어바지락 등 약335만 마리의 우량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방류계획 중이다. 또한 민어전복참담치해조류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특산물종양식기술 개발연구 통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